



군산동고
제2021-7호

가 정 통 신 문

(우) 54067 군산시 달여길 50, (개정동)
http://kunsan-donggo.hs.kr/ ☎ 450-1104

세계로 용비하는
군산동고등학교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자녀존중 십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2021. 4. 2.

군산동고등학교장

